

진관사 태극기의 문화유산 가치와 대중적 공유 방안

The Value of the Jinguansa Taegukgi as a Cultural Heritage and the Direction of its Public Sharing

이광표

국문요약 이 논문은 진관사 태극기(보물, 1919년경)의 문화유산으로서 의미와 가치를 고찰하고 이를 토대로 인식과 수용의 방향을 성찰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진관사 태극기는 2009년 5월 서울시 진관사의 칠성각 건물을 해체·수리하는 과정에서 발견되었다. 태극기는 칠성각 내부의 벽체와 기둥 사이 은밀한 곳에서 독립운동 관련 신문과 문건(1919년 발행)을 감싼 상태로 발견되었다는 점, 일장기를 지우고 먹으로 태극과 4괘를 덧칠해 만들었다는 점, 불에 탄 듯한 흔적이 태극기에 남아 있다는 점, 태극기의 4괘가 대한민국임시정부 태극기의 4괘와 일치한다는 점 등에서 화제가 되었다.

논문에서는 발견 상황, 제작 방식, 함께 발견된 동반 자료의 측면으로 나누어 태극기의 의미를 살펴보았다. 현재까지 알려진 일제강점기 태극기 가운데 일장기를 개조해 만든 거의 유일한 경우이며, 임시정부와의 관련 속에서 실제 독립운동에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태극기와 신문·문건을 사찰의 은밀한 곳에 감출 수밖에 없을 정도로 당시 상황이 급박했음을 알 수 있다.

진관사 태극기는 지난한 내력과 극적인 스토리가 두드러진다. 특히 제작-활용-감춤-발견까지 90년의 내력을 지니고 있으며 그 내력과 스토리의 흔적이 태극기에 상처처럼 고스란히 남아 있다. 이런 점에서 진관사 태극기는 항일독립운동 태극기로서의 역사성·상징성·대중성을 모두 갖춘 문화유산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핵심어 진관사 태극기, 역사적 맥락, 문화유산 가치, 컬렉션 스토리, 인식과 활용

- 차례**
1. 머리말
 2. 진관사 태극기의 발견
 3. 진관사 태극기의 의미와 가치
 4. 진관사 태극기의 인식과 수용
 5. 맺음말

1. 머리말

〈서울 진관사(津寬寺) 태극기〉(보물, 1919년경)의 발견 과정과 발견 상황은 매우 이례적이고 흥미롭다. 진관사 태극기는 2009년 5월 서울시 은평구 진관사의 칠성각(七星閣) 건물을 해체·수리하는 과정에서 발견되었다. 태극기는 칠성각 내부의 불단과 벽체 사이의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 숨겨져 있었으며 1919년 발행된 독립운동 관련 신문과 문건을 감싸고 있는 상태였다. 그 태극기는 일장기를 지우고 태극과 4괘를 덧칠해 만든 것으로 확인되었다.

진관사 태극기는 그 존재가 확인된 지 16년밖에 되지 않았다. 우리에게 많이 알려진 근대기 태극기들에¹ 비

• 이 논문은 2025년 6월 대한불교조계종 진관사가 개최한 '초월스님 순국 81주기 및 광복 80주년 기념 학술세미나: 진관사 태극기와 백초월'에서 발표한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임.

• 서원대학교 휴머니티교육대학 부교수

하면 대중과 만나게 된 기간이 짧은 편이다. 그런데도 진관사 태극기는 최근 들어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으며 대중의 관심 대상으로 자리 잡았다. 발견 9개월 만인 2010년 2월 진관사 태극기와 동반 자료(독립운동 관련 신문과 문건 5종 19점)는 <진관사 소장 태극기 및 독립신문류>라는 이름으로 국가등록문화유산이 되었다. 이어 2021년 10월엔 이 가운데 진관사 태극기가 보물로 승격되었다.² 2015년부터는 3·1절과 광복절이 되면 서울시 은평구 주요 도로에 진관사 태극기(복제품)가 내걸리고 있으며 2025년 3·1절 무렵엔 서울시 국회의사당 정면 외벽에 진관사 태극기를 복제한 대형 현수막이 걸렸다. 아울러 진관사 태극기 이미지를 배지로 만들어 착용하는 사례도 부쩍 많아졌다. 이러한 현상은 진관사 태극기와 대중 사이의 역사적·문화적 상호작용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림 1〉진관사 태극기. 1919년경, 89×70cm, 보물, 진관사 소장

- 1 국가지정유산인 보물로 지정된 근대기 태극기는 <서울 진관사 태극기>, <김구(金九) 서명문 태극기>(1941년, 독립기념관 소장), <대니 태극기>(1880~1890년,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등 3점이고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된 근대기 태극기는 <불원복(不遠復) 태극기>(1907년, 독립기념관 소장), <배설(裴說) 유품 태극기>(1909년 5월 이전, 동아일보 신문 박물관 소장), <남상락(南相洛) 자수 태극기>(1919년, 독립기념관 소장), <뉴욕 월도프 아스토리아 호텔 계양 태극기>(1930년대, 국회 헌정기념관 소장), <한국광복군 서명 태극기>(1945년, 독립기념관 소장),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태극기>(일제강점기,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소장), <공군사관학교 제1기 졸업생 첫 출격 서명문 태극기>(1952년, 국립공군박물관 소장) 등 19점이다.
- 2 당시 국가등록문화유산이었던 <대니 태극기>, <김구 서명문 태극기>도 함께 보물로 승격되었다.

진관사 태극기가 발견된 이후로 이에 관한 연구가 이뤄졌지만³ 문화유산으로서 어떤 의미와 가치를 지니는지, 그 의미와 가치가 대중의 인식과 수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선 구체적인 연구가 부족한 편이다. 이 논문은 문화유산의 측면에서 진관사 태극기의 의미와 가치를 체계적으로 검토하는 데 목적이 있다.

문화유산은 역사적 산물(흔적)이지만 일반적인 역사 흔적과는 다른 양상을 지닌다.⁴ 그 대표적인 양상으로 물리적 흔적으로서의 측면과 스토리의 측면을 들 수 있다. 문화유산은 물리적 흔적 즉 물질로서의 특성을 보여준다. 특정 역사적 이슈나 인물의 행적에 관한 일반적인 기록이나 구전(口傳)이 해당 내용의 서술과 전달에 효과적이라면, 물리적 흔적(물질)으로서의 문화유산은 특정 이슈나 상황, 관련 인물의 극적이고 상징적인 단면이나 구체적인 분위기를 전달하는 데 더 효과적이다. 문화유산 특히 진관사 태극기와 같은 동산(動産)문화유산의 경우엔 여러 사람의 손을 거치고 이곳저곳을 옮겨 다니면서 후대로 전승된다. 그 과정에서 이런저런 사건·사고를 겪으면서 다양한 스토리가 축적되는데 이러한 스토리는 해당 문화유산의 의미와 가치 형성에 중요하게 작용한다. 따라서 물리적 흔적으로서의 측면, 스토리의 측면에 초점을 맞춰 진관사 태

3 진관사 태극기에 관한 대표적 연구는 다음과 같다. 김광식, 「백초월의 항일운동과 진관사」, 『한국독립운동사연구』 36,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10; 김광식, 「백초월 독립운동의 이념」, 『진관사 태극기와 백초월』, 대한불교조계종 진관사·백초월스님 선양회, 2025; 송명호, 「태극기 문화재 활용방안: 진관사 소장 태극기를 중심으로」, 『대각사상』 18, 대한불교조계종 대각회 대각출판부, 2021; 송명호, 「진관사 태극기의 재조명」, 『진관사 태극기와 백초월』, 대한불교조계종 진관사·백초월스님 선양회, 2025; 이재수, 「문화콘텐츠로 본 진관사 태극기 기념사업」, 『정토학연구』 17, 여래장, 2012; 한철호, 「진관사 태극기의 형태와 그 역사적 의의」, 『한국독립운동사연구』 36,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10.

4 여기서 말하는 문화유산은 유형(有形)유산, 무형(無形)유산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 아니라 유형유산에 국한한다. 이는 2024년 도입된 국가유산 체제에 따른 것이다. 2024년 5월 정부는 '문화재'라는 용어(개념)를 폐기하고 '국가유산'이란 용어(개념)를 도입했다. 문화재청의 이름이 국가유산청으로 바뀐 것도 이러한 변화의 일환이었다. 국가유산은 문화유산, 무형유산, 자연유산으로 분류되며 이 가운데 문화유산은 유형문화유산을 가리킨다.

극기를 고찰할 것이다.

먼저, 태극기의 발견 과정과 상황을 살펴보겠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발견 상황, 태극기의 제작 방식, 태극기의 상태와 특징, 함께 발견된 동반 자료다. 이것은 태극기의 문화유산으로서의 의미와 가치를 탐구하는 데 매우 중요한 자료이기 때문이다. 이 네 가지 요소는 발견 현장에 남아 있는 핵심 단서라고 할 수 있다. 이 단서들을 토대로 진관사 태극기의 용도, 태극기를 칠성각 벽체에 숨긴 배경 등을 탐구하겠다. 이는 진관사 태극기의 역사적 맥락과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진관사 태극기의 발견 상황과 태극기의 특징, 그리고 현장의 단서를 토대로 한 추론은 모두 진관사 태극기에 얽힌 흥미로운 스토리가 된다. 이에 주목해 그 스토리가 지닌 대중 소통 요소, 대중의 인식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도 살펴보겠다. 대중들은 특정 문화유산을 인식하고 수용하는 과정에서 스토리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진관사 태극기도 마찬가지다. 여기서 ‘컬렉션 스토리’의 개념을 적용해 진관사 태극기를 대중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수용하는지 고찰할 것이다. 아울러 현재 우리 사회의 수용(활용) 방식에 대해 성찰적으로 검토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성찰적 접근은 진관사 태극기의 존재 의미를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하고 인식과 수용의 방식을 심화·확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2. 진관사 태극기의 발견

2.1. 태극기 발견 상황

서울 은평구 진관사는 고려 현종 때인 1010년 창건되었고 조선시대에는 왕실 수륙재(水陸齋)의 근본 도량으로 자리 잡으면서 서울 근교의 4대 명찰로 일컬어졌다. 1950년 6·25전쟁 때 대부분의 건물이 불에 타 없어지고 칠성각, 나한전(羅漢殿), 독성전(獨聖殿)만 남게 되었으나 이후



〈그림 2〉진관사 태극기는 보자기처럼 무언가를 감싼 채 발견되었다.



〈그림 3〉태극기가 감싸고 있던 3·1독립운동 관련 신문과 문건들.

재건 과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다.

진관사 태극기는 2009년 5월 26일 칠성각을 해체·보수하는 과정에서 발견되었다. 칠성각은 대웅전 바로 옆에 위치한다. 1911년 세워진 칠성각은 많이 낡았고 6·25전쟁 때 폭격 등으로 인해 옆으로 기울어진 상태였다. 2009년 당시 칠성각을 해체하던 한 인부가 건물 내부의 불단 안쪽 윗부분과 기둥 사이의 벽체에 붙어 있던 한지 뭉치를 발견했다. 인부로부터 보따리를 넘겨받은 당시 진관사 총무인 법해 스님(현재의 주지)이 겹겹의 한지를 조심스럽게 벗겨내자 보따리가 모습을 드러냈다.⁵ 보따리는 낡은 광목천으로 되어 있었는데 무언가를 감싼 상태였다. 그 천에서 붉은색과 검은색 태극무늬가 보였다. 보따리를 풀어보

⁵ 송화선, 「속속 밝혀지는 진관사 태극기의 비밀: 90년 만에 드러난 불교계의 항일운동」, 『신동아』 714, 동아일보사, 2019 참조.

니 놀랍게도 보자기는 태극기였다. 태극기는 전체적으로 빛이 바랬고 일부 모퉁이는 불에 탄 듯 훼손된 모습이였다. 태극기가 감싸고 있었던 것은 오래된 신문지 뭉치들이었다. 그것들은 돌돌 말리거나 접힌 상태였다. 『독립신문(獨立新聞)』(상해판), 『신대한(新大韓)』, 『조선독립신문(朝鮮獨立新聞)』, 『자유신중보(自由晨鍾報)』, 『경고문(警告文)』 등 1919년에 발간된 신문과 3·1 독립운동 관련 문건(총 5종 19점)으로 확인되었다.

진관사 태극기의 발견 상황은 매우 독특하다. 여기서 특별히 두드러진 것은 그 태극기를 감추던 정황의 비밀스러움과 긴박함이다. 태극기가 독립운동 관련 신문과 문건을 감싸고 있었다는 사실, 그 보따리 뭉치가 진관사 칠성각 불단의 안쪽 벽체 은밀한 곳에 감춰져 있었다는 사실은 그 자체만으로도 100여 년 전의 급박한 분위기를 잘 전해 준다. 무언가 다급한 상황에서 태극기와 독립운동 관련 자료들을 일체의 눈에 띄지 않게 서둘러 보관해야 했음을 어렵지 않게 추론할 수 있다. 진관사 태극기의 발견은 우연이었으나 발견 상황은 대중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사회적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다. 아울러 진관사 태극기의 역사적 맥락과 존재 의미를 인식하고 수용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2.2. 태극기의 특징

진관사 칠성각에서 발견된 태극기는 가로 89cm, 세로 70cm에 태극 지름은 33cm이다. 가로 세로의 비율은 약 5:4이다. 태극기는 전체적으로 낡은 상태다. 바탕이 되는 흰색 광목천은 세월이 흐르면서 누렇게 바랬고 중간중간 짙게 변색한 부분이 있으며 태극기를 접었던 흔적도 남아 있다. 오른쪽 위 모퉁이에서 왼쪽 아래 모퉁이까지 대각선으로 나누어 본다면, 왼쪽 윗부분이 오른쪽 아랫부분보다 훨씬 더 낡았고 훼손되었으며 광목천도 더 많이 바랬다.

태극기의 왼쪽 위 모퉁이 부분이 불에 탄 듯 훼손되었고 태극의 양의(陽儀) 주변에 찢어진 부분과 구멍이 여러

개 보인다. 왼쪽 윗부분의 훼손은 불에 탄 것으로 추정되지만⁶ 더욱 명확한 판단을 위해 천의 현재 상태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이 필요해 보인다. 여러 개의 구멍의 실체에 관해선 좀 구멍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⁷ 그러나 광목천의 상태로 보면, 태극기의 천이 낡아 울이 찢어지고 벌어지면서 생긴 구멍일 가능성도 있다. 구멍이 생긴 경위에 대해서도 과학적이고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진관사 태극기는 일장기를 개조해 만든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미 제작된 일장기의 붉은 원에 검은 먹을 덧칠해 태극을 표현하고 그 주변에 4괘를 그려 넣어 만든 것이다. 위쪽 테두리와 아래쪽 테두리, 태극 부분은 재봉틀로 박음질이 되어 있다. 붉은 원은 애초에 일장기를 만들 때, 별도의 붉은 천을 오려 흰색 바탕천에 박음질한 것이다. 진관사 태극기는 함께 발견된 동반 자료로 보아 1919년 또는 그 직전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태극기로 개조된 원래의 일장기는 1919년 이전에 만들어져 이미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⁸ 일장기 개조와 관련해선 3장에서 다시 살펴보겠다.

태극을 보면, 일장기의 붉은 원에 검은색 먹을 덧칠해 음의(陰儀)를 만들어 태극의 형태를 완성했다. 즉 붉은색 양의 부분은 일장기 붉은 원을 그대로 활용했고, 음의에 해당하는 부분은 검은 먹을 덧칠해 표현한 것이다. 붉은색 양의는 왼쪽 위에, 검은색 음의는 오른쪽 아래에 배치했다. 검은 먹은 앞면과 뒷면에 모두 칠했다. 먹으로 칠한 음의 부분의 테두리가 원 밖으로 번진 상태다.

양의와 음의의 몸통은 가늘고 길게 휘어져 그 굴곡이 심하다. 이러한 태극 모양은 현재의 태극기와 다른 것이다. 이와 흡사한 태극 형태를 지닌 근대기 태극기로는 <대니 태극기>(보물, 1880~1890년,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뉴욕 윌도프 아스토리아 호텔 게양 태극기>(국가등록문화유산,

6 한철호, 앞의 논문, 10쪽; 송명호, 「진관사 태극기의 재조명」, 54쪽 참조.

7 송명호, 「태극기 문화재 활용 방안: 진관사 소장 태극기를 중심으로」, 앞의 책, 455쪽.

8 위의 논문, 445쪽.

1930년대, 국회 헌정기념관 소장), <노블 태극기>(1892년, 국립 중앙박물관 소장)가 있다.

4괘는 먹으로 검게 그려 넣었다. 애초의 일장기에 없던 것을 추가로 그린 것이다. 4괘 각각의 폭은 1.5cm이고 긴 선은 11~12cm, 짧은 선은 5cm이다. 먹이 번진 선을 비교해 볼 때 앞면과 뒷면에 모두 먹칠을 했다.⁹ 4괘를 선명하게 드러내기 위해 앞뒷면 양쪽에 모두 먹칠을 한 것으로 보인다.

4괘의 위치를 보면, 윗부분의 왼쪽과 오른쪽에 건괘(乾卦)와 리괘(離卦), 아래쪽의 왼쪽과 오른쪽에 감괘(坎卦)와 곤괘(坤卦)를 각각 배치했다. 현재의 태극기와 비교할 때 4괘의 위치가 다르다. 건, 곤은 동일한 위치에 있지만 리, 감은 서로 위치가 바뀌었다. 진관사 태극기의 4괘 위치는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태극기>(국가등록문화유산, 일제강점기,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소장)의 4괘 위치와 동일하다. 일제강점기 대한민국임시정부의 국기 양식을 따른 것으로, 진관사 태극기가 대한민국임시정부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진관사 태극기엔 깃대에 걸어 고정했던 흔적도 남아 있다. 왼쪽의 아래 감괘 부분의 모서리에는 작은 구멍이 있는데,¹⁰ 인위적으로 뚫은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끈을 끼워 깃대에 달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깃대에 고정할 때 힘이 가해질 것을 대비해 왼쪽 아래 모퉁이 뒷면에 보강천을 달았던 흔적도 보인다.¹¹ 이와 달리 오른쪽 위와 아래의 모퉁이에는 보강천의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

2.3. 함께 발견된 동반 자료

진관사 태극기는 독립운동 관련 신문과 문건을 감싸고 있는 상태로 발견되었다. 진관사 칠성각의 불단 뒤쪽 벽체에서 태극기와 함께 신문과 문건이 발견되었다는 사실 자

체만으로도 이례적이고 흥미로운데 발견된 자료들은 모두 범상치 않은 것들이었다. 태극기가 감싸고 있던 자료는 『독립신문』, 『신대한』, 『조선독립신문』, 『자유신종보』, 『경고문』 등 1919년 6~12월 사이에 발간된 독립운동 관련 신문과 문건 5종 19점으로 확인되었다. 이 동반 자료들의 발행 시기로 보아 함께 발견된 태극기도 1919년 또는 그 이전에 만들어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신문과 문건 자료들은 진관사 태극기의 맥락과 의미를 이해하고 평가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다. 이에 그치지 않고 진관사 태극기를 기억하고 활용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표 1〉 진관사태극기와 함께 발견된 자료

이름	발행일	발행처	수량	비고
獨立新聞 (상해판)	제30호 1919년 11월 27일(2점) 제32호 1919년 12월 25일(2점)	대한민국 임시정부	4	
新大韓	제1호 1919년 10월 28일 제2호 1919년 11월 3일 제3호 1919년 11월 12일	신대한 신문사	3	제2호, 제3호 실물은 처음 확인됨
朝鮮獨立新聞	제32호 1919년 6월 6일 제40호 1919년 8월 12일 제41호 1919년 8월 제42호 1919년 8월 20일 호외	보성사	5	등사본 제32호, 제40호 실물은 처음 확인됨
自由晨鐘報	제4호 제7호 1919년 9월 19일 제12호 1919년 10월 6일 (4점)		6	실물은 처음 확인됨
警告文	1919년 6월 1일	조선노동회 경성단	1	등사본

2.3.1. 『독립신문(獨立新聞)』(상해판) 4점

『독립신문』은 1919년 8월 21일 창간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기관지이다. 창간 당시 제호는 ‘독립(獨立)’이었으나 제23호(1919년 10월 28일)부터 ‘독립신문’으로 변경되었으며 제198호(1926년 11월 30일)까지 발간되었다. 진관사 칠성각에서 태극기와 함께 발견된 것은 제30호(1919년 11월 27일) 2점, 제32호(1919년 12월 25일) 2점이다. 제30호 1면엔 「태극기」란 시가 수록되었고 제32호 4면엔 김

9 문화재위원회, 『2021년 문화재위원회 동산문화재분과위원회 제5차 회의 자료』, 문화재청, 2021, 227쪽.

10 한철호, 앞의 논문, 10쪽.

11 문화재위원회, 앞의 책, 227쪽.

두봉(金料奉)의 글 「태극국기신설(太極國旗新說)」이 수록되었다.

2.3.2. 『신대한(新大韓)』 3점

『신대한』은 신채호(申采浩)가 대한민국임시정부 임시의정원 의원직을 사임하고 1919년 10월 중국 상해에서 창간한 신문이다. 1919년 10월 28일 창간호가 발행되었고 국내와 중국뿐만 아니라 러시아, 미주지역에도 배포되었다. 진관사 칠성각에서 태극기와 함께 발견된 것은 제1호 창간호(1919년 10월 28일) 1점, 제2호(1919년 11월 3일) 1점, 제3호(1919년 11월 12일) 1점이다. 『신대한』 제2호와 제3호의 실물은 처음 확인된 것이다.

2.3.3. 『조선독립신문(朝鮮獨立新聞)』 5점

『조선독립신문』은 3·1독립운동 당시 천도교에서 발행한 지하 독립신문이다. 3·1독립선언서를 인쇄한 보성사의 사장이자 민족대표 33인 가운데 한 명인 이종일(李鍾一) 등이 발간했다. 제43호(1919년 8월 21일)까지 발간이 이어졌다. 창간 당시엔 인쇄본이었으나 일제의 감시가 강화되면서 등사본으로 바뀌었다. 진관사 칠성각에서 태극기와 함께 발견된 것은 제32호(1919년 6월 6일) 1점, 제40호(1919년 8월 12일) 1점, 제41호(1919년 8월) 1점, 제42호(1919년 8월 19일) 1점, 호외 1점이다. 인쇄본이 아니라 모두 등사본이다. 제호에 교차 게양된 태극기가 그려져 있다.

2.3.4. 『자유신중보(自由晨鐘報)』 6점

『자유신중보』은 불교계 지하 독립신문으로, 불교중앙학림 등 불교 관련 학생들이 발간을 주도했다. 1919년 6월부터 1919년 10월 28일까지 서울에서 16차례 부정기적으로 발간되었다. 진관사 칠성각에서 태극기와 함께 발견된 것은 제4호(미확인) 1점, 제7호(1919년 9월 19일) 1점, 제12호(1919년 10월 6일) 4점이다. 『자유신중보』의 실물은

처음 확인된 것이다.

2.3.5. 「경고문(警告文)」 1점

1919년 6월 1일 조선노동회경성단(朝鮮勞動會警醒團)이란 단체가 제작해 배포한 문건으로, ‘우리 형제들에게’란 부제가 붙어 있다. 3·1독립운동 이후 일제의 편에 선 세력들이 자치운동을 벌인 것에 대해 엄중히 경고하고 항일독립운동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인쇄본이 아니라 등사본이다. 이 「경고문」엔 교차 게양된 태극기와 자유종이 그려져 있다.

3. 진관사 태극기의 의미와 가치

3.1. 제작 방식과 상징성

진관사 태극기는 일장기 위에 그린 것이다. 기존 일장기의 붉은 원에 검정 먹물을 덧칠해 태극의 음의 부분을 표현하고 그 주변에 4괘를 그려 만들었다. 함께 발견된 신문과 문건이 모두 1919년 6~12월에 발행된 것이라는 점에서 태극기는 1919년 또는 그 직전에 일장기를 개조해 만든 것으로 볼 수 있다.

일장기 개조를 파악하려면 당시 일장기의 제작 방식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근대기 일본인들은 흰색 천에 붉은색 원을 바느질로 꿰매 일장기를 만드는 경우가 많았다. 이를 감봉(嵌縫) 방식이라고 한다. 감봉은 상감(象嵌) 기법처럼 천을 오려내고 그 위에 다른 천을 재봉하는 방식을 말한다. 진관사 태극기의 원판(原版)이었던 일장기의 상태를 보면, 흰색 바탕천의 가운데를 원형으로 잘라내고 그 위에 둥근 모양의 붉은색 천을 덧붙였다. 바로 감봉 방식이다. 붉은색 천의 지름은 흰색 천의 지름보다 약 1.5cm 정도 크게 자른 뒤 붉은색 천의 시점(0.3cm)을 접어 넣어 한 번 바느질하고, 뒤쪽에서 흰색 천의 가장자리를 돌아가면서 다시 한번 박음질했다. 그 결과 일장기 붉은 부분(태

극기의 태극 부분)의 가장자리에 두 줄의 상침선(上針線)이 보인다.¹² 태극의 지름이 앞면에서 보았을 때 33cm이고 뒷면에서 보았을 때 31cm인 것도 이 때문이다. 이렇게 진관사 태극기는 먹물을 덧칠해 태극 음의와 4괘를 표현한 점, 일장기에 사용된 감봉 방식과 상침선이 남아 있는 점, 가로 세로의 비율이 3:2가 아니라 5:4라는 점 등에서 일장기를 개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일장기를 지우고 태극기를 그렸다는 것은 일장기를 의도적으로 훼손한 것이다. 그러한 행위를 통해 반일(反日) 저항의식과 조국 독립의 열망을 상징적으로 표현했다. 2021년 진관사 태극기가 국가등록문화유산에서 보물로 승격될 때, 문화재위원회(현재의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평가와 송명호의 논문에서도 이런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일제강점기라는 시대적 상황으로 보아 일장기를 개조하여 태극기를 만든다는 것은 일제 모독의 죄로 최고의 형벌 대상이었을 것인데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일장기 개조 태극기를 만들어 진요하게 사용했다는 것은 항일독립운동에 투철한 승려가 아니고선 감히 실행하지 못할 일이다.¹³

백초월 스님이 장삼 등관만한 하얀 천이 없어서 일장기 위에 덧칠하여 태극기를 개조한 것은 아니고, “반드시 일본을 짓누르고 일어서겠다”는 항일정신으로 그런 의도를 작심하였던 것이다.¹⁴

일장기를 지우고 그 위에 태극기를 그렸다는 것은 그 행위 자체만으로도 적극적인 독립운동이다. 아울러 근대기 태극기의 상징성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다. 1883년 3월 고종이 태극기를 조선의 국기로 반포한 뒤 일제강점기가 되면 태극기는 국권 회복과 독립 의지를

나타내는 표상으로 자리 잡았다. 태극기는 독립운동 현장에서 쉽 없이 나부끼면서 “나라와 국민의 정신적 지주로 각인되어 독립운동을 하는 데 무혈의 무기가 되었다.”¹⁵ 독립운동 현장에서 태극기는 필수 요소로 자리 잡았고 “태극기는 깃발 자체로 강렬한 저항의 상징성을 지니게 되었다.”¹⁶ 이에 따라 조선인들은 독립운동에 활용할 태극기를 많이 제작하였다.¹⁷ 그러나 현재까지 전해오는 일제강점기 태극기의 실물은 매우 적다.

일제강점기의 태극기 가운데 일장기를 지우고 태극과 4괘를 덧칠해 만든 태극기는 더욱 귀하다. 일제강점기 일장기 위에 태극기를 그렸다는 주장은 많이 제기되었지만 진관사 태극기처럼 온전한 상태로 발견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¹⁸ 현재까지 실물이 공개된 일제강점기 태극기 가운데 일장기를 개조한 경우는 진관사 태극기가 유일한 것으로 추정된다(〈표 2〉 참조).

〈표 2〉 실물이 공개된 일제강점기 전후 태극기의 대표 사례

이름	소장처	제작 시기	일장기 개조 흔적	등록·지정 여부
불원복(不遠復) 태극기	독립기념관	1907년	없음	국가등록 문화유산
동덕여자의숙 태극기	동덕여대 박물관	1908년	없음	국가등록 문화유산
배설(裵說) 유품 태극기	동아일보 신문박물관	1909년 5월 이전	없음	국가등록 문화유산
남상락(南相洛) 자수 태극기	독립기념관	1919년	없음	국가등록 문화유산
평양 숭실학교 태극기	숭실대 한국기독교박물관	1919년	없음	
서울 진관사 태극기	진관사	1919년경	있음	보물
대한민국임시 의정원 태극기	독립기념관	1923년	없음	국가등록 문화유산

15 송명호, 「문화재가 된 태극기」, 『문화재』 347, 한국문화재단, 2013, 10쪽.

16 이기훈, 「3·1운동과 깃발」, 『동방향지』 185, 연세대 출판부, 2018, 14쪽.

17 윤선자, 「독립운동과 태극기」, 『역사학연구』 35, 호남사학회, 2009, 88~94쪽.

18 한철호, 앞의 논문, 9쪽.

12 문화재위원회, 앞의 책, 225쪽.

13 위의 책, 230쪽.

14 송명호, 앞의 논문, 51쪽. 송명호는 이 논문에서 일장기에 태극기를 그린 사람을 독립운동가 백초월로 보았다.

대한민국임시 의정원 태극기	대한민국역사 박물관	일제강점기	없음	국가등록 문화유산
대한민국임시정부 태극기	이화여대 박물관	1930년대	없음	
장성 백양사 태극기	백양사	일제강점기	없음	
뉴욕 월도프 아스 토리아 호텔 계양 태극기	국회 헌정기념관	1930년대	없음	국가등록 문화유산
‘대한독립만세’ 태극기	독립기념관	1930 ~ 1940년대	없음	국가등록 문화유산
김구(金九) 서명문 태극기	독립기념관	1941년	없음	보물
한국광복군 서명문 태극기	독립기념관	1945년	없음	국가등록 문화유산

일장기 위에 그린 근대기의 태극기로는 <미 해병대원 버스비어 기증 태극기>(국가등록문화유산, 1950년, 하남역사박물관 소장)가 널리 알려져 있다. 이 태극기는 1950년 6·25전쟁에 참여했던 미국 해병대원 A. W. 버스비어가 9·28 서울수복 당시 한 시민으로부터 받아서 보관하다 2005년 경기도 하남시에 기증한 것이다. <미 해병대원 버스비어 기증 태극기>는 광복 이후에 만들어졌다. 진관사 태극기는 엄혹했던 일제강점기에, 그것도 3·1독립운동 직후의 시기에 일장기를 지우고 만든 태극기다. 일제강점기에 일장기를 지우는 행위의 절실함이나 위험 부담은 6·25전쟁 때와는 다를 수밖에 없다. 이런 점에서 진관사 태극기는 일제강점기 태극기의 상징성을 극적으로 보여주는 문화유산으로 평가하기에 충분하다.

3.2. 발견 상황과 역사적 맥락

진관사 태극기는 진관사 대웅전 옆 건물인 칠성각 내부의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독립운동 관련 자료(신문과 문건)를 감싸고 있는 보따리 상태로 발견되었다. 태극기 보따리는 겹겹의 한지에 싸여 불단 뒤쪽 벽체 은밀한 곳에 감춰져 있었다. 그 태극기는 일장기를 지우고 태극과 4괘를 그려 넣어 만든 것으로 확인되었다. 함께 발견된 동반

자료엔 대한민국임시정부와 관련이 있는 『독립신문』이나 『신대한』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은 이 태극기가 1919년 무렵 진관사(불교계), 대한민국임시정부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음을 시사한다. 3·1독립운동과 관련이 있는 태극기일 가능성,¹⁹ 상해 대한민국임시정부 혹은 관련 단체가 사용하기 위해 만든 태극기일 가능성²⁰ 등이 제기된 것도 이 때문이다.

여기서 대한민국임시정부와의 관련성의 근거를 살펴 보겠다. 태극기 4괘의 위치가 대한민국임시정부 태극기와 일치한다는 점, 동반 자료에 대한민국임시정부 간행물인 『독립신문』(상해판)과 임시정부와 관련이 있는 『신대한』이 포함되었다는 점, 동반 자료인 『자유신종보』에 대한민국임시정부에 관한 내용이 여러 차례 수록되었다는 점,²¹ 『독립신문』(상해판)에 개천절 독립만세시위(1919년 11월 경성) 관련 내용이 수록되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동반 자료인 『자유신종보』를 보면, 대한민국임시정부 조직에 관한 내용뿐만 아니라 3·1운동 이후의 파리기강화 회의와 대표단 파견 등 임시정부 상황을 전하는 내용이 여러 차례 실렸다.²² 이는 임시정부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한 것이며 『자유신종보』 제작진이 임시정부를 비롯해 상해 지역의 독립운동 진영과 연계를 시도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임정 관련한 소식이 비중 있게 다루어지고 있음은 임정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채널을 확보하고 있었을 개연성을 제기”하며 “임정 국내 기관원과 자유신종보 제작그룹 간의 연계 가능성도 유추할 수 있다.”²³

동반 자료인 『독립신문』 제30호(1919년 11월 27일 발행) 제1면에는 「개천경절(開天慶節)의 감언(感言)」이라는 기사

19 위의 논문, 13쪽.

20 위의 논문, 14쪽.

21 한상도, 「3·1운동 직후 『自由晨鐘報』 간행과 독립운동계 동향」, 『한국 독립운동과 진관사: 서울역사박물관 시민강좌』, 서울역사박물관, 2010 참조.

22 「我國體의 聲明」, 『자유신종보』 7호; 「各國代表者態度」, 『자유신종보』 12호; 「我代表選定」, 『자유신종보』 12호.

23 한상도, 앞의 논문, 69쪽.

가 실려 있다. 이 기사는 진관사 태극기의 성격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단서가 된다. 「개천경절의 감언」 기사는 개천절(단군 개국기념일)을 맞아 그 의미를 되새기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기서 특히 주목할 대목은 당시 대한민국임시정부와 연계해 독립운동을 전개한 승려 백초월(1878~1944년)과의 연관성이다.²⁴ 백초월은 불교계의 독립운동을 이끌며 불교계 자금을 모아 대한민국임시정부와 만주 지역의 독립군 부대에 제공했다. 1919년 4월 불교중앙학림에 한국민단본부를 결성하고 비밀 지하신문인 『혁신공보(革新公報)』를 발간해 독립의식을 고취했으며 독립운동자금을 모금해 상해의 임시정부로 보냈다. 1919년 11월 개천절을 기해 서울 도심에서 독립만세시위 운동을 이끌었으며 1920~1930년대에 진관사의 서울 마포 포교당(극락암)에 머물기도 했다.²⁵ 1938년엔 경성역(서울역)을 출발해 만주 봉천(奉天)으로 향하는 화물열차에 ‘대한독립만세’라고 낙서한 사건에 연루되어 일제에 체포되었다. 이후 독립운동 모금 사건으로 또다시 투옥되어 1944년 6월 청주형무소에서 순국했다.

진관사 태극기와 관련해 특별히 주목해야 하는 백초월의 행적은 1919년 개천절 독립만세 시위운동을 주도한 것이다. 이 만세 시위는 새롭게 구성된 민족대표 33인이 이끌었고 백초월도 그 가운데 한 명이었다.²⁶ 1919년 11월 25일(음력 10월 3일) 개천절을 기하여 경성 도심의 경운동과 삼청동, 탑골공원에 태극기와 단군 깃발이 게양되었다. 11월 27일엔 경성 시내 학생들이 대한민국임시정부 성립에 관한 축하문과 선언서, 포고문 등을 배포했고 11월 28일엔 안국동에서 시위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이틀 뒤에 예정되었던 만세 시위는 실패로 돌아갔다. 이로 인해

백초월은 1919년 12월, 1920년 2월과 4월 등 여러 차례 일본 경찰에 체포되었다. 백초월의 이 같은 행적은 『독립신문』 제30호에 실린 「개천경절의 감언」의 내용과 연결된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진관사 태극기는 대한민국임시정부, 백초월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와 관련해 그동안 다양한 견해가 제기된 바 있다. 백초월이 이 자료들(신문과 문건)을 소지하고 있었으나 1919년 12월 체포됨에 따라 누군가가 이 자료들을 태극기에 싸서 칠성각 불단 뒤쪽에 숨겼을 것이라는 견해,²⁷ 대한민국임시정부 관련 인사가 태극기와 신문을 가져와 백초월에게 전달했고 이를 백초월 혹은 진관사 관련 인사가 칠성각에 숨겼을 것이라는 견해,²⁸ 백초월이 1919년 12월 일제에 체포된 이후인 1920년 초반부터 1920년 4월 세 번째 체포되기 직전의 긴박한 상황에서 숨겼을 것이라는 견해,²⁹ 백초월이 진관사에 머물던 1921년 일장기를 개조해 태극기를 만든 뒤 동반 자료와 함께 숨겼을 것이라는 견해³⁰ 등이다. 이와 함께 독립운동과 관련된 특정 상황에서 사용한 뒤 일제의 눈에 띄지 않도록 감추었다는 추론도 가능해진다.

물론, 누가 언제 어디서 이 태극기를 만들어 진관사 칠성각에 숨겼는지 명확하게 단정 지을 수는 없다. 대한민국임시정부나 백초월과의 관련성을 직접적으로 기록한 자료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그렇기에 태극기의 제작 목적과 실제 용도, 진관사 칠성각에 숨기게 된 배경 등에서 연구자 사이에 차이가 보인다. 그럼에도 중요한 공통점이 발견된다. 진관사는 백초월 등 불교계 독립운동 세력과 밀접한 관계를 맺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점, 대한민국임시정부와의 연계 속에서 독립운동을 전개했다는 점, 태극기와 동반 자료는 이러한 배경 속에서 1919년 11월 개천절 독립만세 시위에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이

24 백초월의 삶과 독립운동, 진관사와의 관련성에 관해서는 김광식, 「백초월의 항일운동과 진관사」, 앞의 책, 참조.

25 이와 관련해 백초월이 1919년부터 진관사에 머물렀다는 견해도 있다. “백초월은 1919년경에 이미 진관사 마포 포교당과 인연이 있었고 그곳에서 치료 겸 은신을 하였다고 추정할 수 있다.” 위의 논문, 53쪽.

26 위의 논문, 41쪽.

27 문화재위원회, 앞의 책, 221쪽.

28 한철호, 앞의 논문, 15쪽.

29 김광식, 앞의 논문, 47쪽.

30 송명호, 앞의 논문, 53쪽.

러한 측면을 통해 1919년 당시 진관사 태극기가 어떻게 사용되었고 왜 진관사 칠성각 불단 뒤에 숨겨놓아야 했는지를 이해할 수 있다. 이것이 진관사 태극기의 역사적 맥락이자 역사적 가치 즉 역사성이다.

3.3. 동반 자료에 나타난 태극기 인식

진관사 태극기와 동반 자료는 1919년 조선인들과 대한민국임시정부가 태극기를 어떤 존재로 인식했는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또 다른 의미를 갖는다. 함께 발견된 『독립신문』, 『조선독립신문』, 「경고문」에는 태극기와 태극 문양 및 태극기 관련 기사가 다수 실려 있다. 태극기를 노래한 시, 태극기를 제작하고 게양하는 방법, 태극과 태극기의 의미 등에 관한 내용들이다. 진관사 태극기가 감싸고 있던 신문자료에 이러한 내용이 집중적으로 수록되어 있다는 사실은 각별한 주목을 요한다. 『독립신문』 제30호 1면에 실린 시「태극기」는 다음과 같다.

우리 太極일세
 乾三連坎中連 坤三絕離中絕
 東西南北上下天下에 떨치라
 太極旗 榮光이 世界에 빛나게
 國民아 소래를 모도다 萬歲萬歲

3
 大韓國 萬萬歲 갑옷을 넘어라
 방패를 들어라
 늙은이 절문이 머시마나 가시나
 하나이 되어라
 太極旗 지켜라 貴하고 貴한 國기
 원 世界 百姓이 다 모혀들어도
 우리의 太極旗 건드리지 못하리
 大韓사람들아 일어나 나가나가
 太極旗를 지켜 大韓나라 지켜³¹

1
 三角山 마루에 새벽빛 비칠제
 네 보았나 보아 그리던 太極旗를
 네가 보았나냐 죽은 줄 알았던
 우리 太極旗를 오늘 다시 보았네
 自由의 바람에 태극기 날니네
 二千萬 同胞야 萬歲를 불러라
 다시 산 太極旗를 爲해
 萬歲萬歲 다시 산 大韓國

2
 불근빛 푸른빛 동글게 열키어
 太極을 일웠네
 피와 힘 自由平等
 영키어 일웠네

이 시에서 태극기는 조국과 독립을 상징한다. “죽은 줄 알았던 우리 태극기를 오늘 다시 보았네”라는 구절에서 독립에 대한 열망과 의지가 전해온다. 조국의 독립이 도래할 것임을 확신하는 자신감도 드러난다. 국권 상실과 함께 존재 의미가 사라져버린 줄 알았던 태극기를 오늘 다시 보았다는 것은 태극기의 부활을 의미한다. 이런 관점은 1919년 3·1 독립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과 관련이 깊다.

『독립신문』 제32호에는 독립운동가이자 국어학자인 김두봉의 글 「태극국기신설(太極國旗新設)」이 실려 있다. 태극의 의미, 태극과 4괘를 그리는 법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는 글이다.

太極의 靑赤은 즉 自由와 平等, 힘과 사랑을 표시함이니
 此 兩者는 吾族의 傳統的 國民性이라. 힘 잇는 곳에 自由가 잇

31 『독립신문』(상해판) 30, 1919.11.27.

고 사랑이 있는 곳에 平等이 있나니 兩者는 相半不離하는 者임으로 圓 내의 曲線으로 相抱케 하나라. 如上의 自由와 平等의 兩大理想을 基礎로 삼은 吾族의 榮光은 世界 四方에 퍼쳐야 할지니 四卦는 此를 示함이라. 連線은 陽을 表하고 中斷線은 陰을 表할진대 乾은 陽뿐이때 南에 位하고 坤은 陰뿐이때 北에 處하며 陽中陰이 離는 東이오 陰中陽이 坎은 西이라. 太陽軌道를 基線 삼으며 南偏西하고 北偏東이라. 太極 中の 赤部는 北에 始하여 漸漸 彫大하면서 東을 經하여 南에 極하고 靑部는 此와 反對라. 然則 太極은 直立치 못하고 기우러지도다. 旗대는 正東에 位할지니 卽 赤편이오, 그 意는 進取를 象함이라. 新時代에는 新理想이 必要하니 我國旗에도 如此의 象徵의 意味를 有함을 知하고야 비로소 國旗에 對한 理解가 生할지오. 또한 劃法도 統一되어 錯誤가 無하리라.³²

이 글의 취지는 태극기의 제작 방법을 알리고 그 의미를 새롭게 하려는 것이다.³³ 그런데 여기서 두드러진 것은 태극의 의미와 정신이다. 태극과 4괘를 우주 만물의 기본 요소나 만물의 생성·변화·발전하는 모습으로 이해하는 기존 주역(周易)의 관점을 넘어 힘과 사랑을 토대로 자유와 평등을 온 세상에 실현해나가는 의미로 새롭게 해석했다.³⁴ 태극기와 태극을 바라보는데 인류 보편의 관점이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하게 된다. 1919년 당시 태극기 인식의 새로운 면모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진관사 태극기와 함께 발견된 『독립신문』은 당시 태극기의 시대적 존재 의미와 태극기 인식에 관해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준다. 진관사 태극기가 언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당시 사람들이 태극기를 어떻게 인식했는지에 관한 정보다. 이 대목에서 동반 자료의 의미와 가치를 찾을 수 있다.

진관사 태극기는 독립운동 관련 신문과 문건을 감싼

상태로 발견되었다. 이는 1919년 칠성각에 감출 때, 이들이 서로 별개의 존재가 아니라 동일한 맥락을 지닌 일체화된 존재였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독립신문』에 나타난 태극기 인식은 진관사 태극기에 담긴 태극기 인식과 일맥상통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독립신문』에 나타난 태극기 인식은 그 자체로 진관사 태극기의 의미와 가치인 셈이다.

3.4. 태극기에 남아 있는 지난한 내력의 흔적

진관사 태극기를 논의하면서 주목해야 할 사실은 칠성각 불단 뒤쪽 벽체의 은밀한 곳에서 발견되었다는 점(발견 장소), 그 태극기가 무언가를 감싼 채 보자기 상태로 발견되었다는 점(발견 상태), 태극기가 감싼 자료들이 3·1 독립운동 관련 신문과 문건이었다는 점(동반 자료)이다. 발견 장소, 발견 상태, 동반 자료를 연결해보면, 이 태극기는 독립운동과 관련해 중요한 용도로 사용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 진관사 태극기는 1919년 독립운동 과정에서 매우 긴박한 상황에 처했을 것이다. 그래서 누군가 진관사 칠성각 벽체에 독립운동 관련 자료들을 태극기로 감싼 채 숨겨 놓았고, 태극기와 동반 자료들은 그 어두운 공간에서 90년을 견뎌야 했다. 결과적으로 진관사 태극기에는 항일 독립운동 시기를 지나온 태극기로서의 역사성과 상징성이 고스란히 담기게 되었다. 진관사 태극기는 이렇게 지난하면서 독특한 내력을 지니고 있다.

또한 그 내력을 구성하는 여러 요소들이 제작 당시부터 현재까지 이어져 온다는 것도 주목할 만하다. 진관사 태극기는 제작-용도-감춤-발견까지 단계 단계마다 극적인 상황과 스토리를 축적해왔다. 이렇게 100여 년에 걸친 장대한 서사를 형성한다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와 가치를 지닌다.

더욱 각별한 점은 그 지난한 내력의 흔적이 태극기 실물에 잘 남아 있다는 사실이다. 실제로 태극기의 현재 상태를 보면, 전체적으로 많이 낡았다. 일부는 손으로 만지

32 『독립신문』(상해판) 32, 1919.12.25.

33 문화재위원회, 앞의 책, 222쪽.

34 위의 책, 233쪽; 한철호, 앞의 논문, 19~20쪽.

면 바스라질 것 같을 정도로 천이 말라 있다. 태극 주변으로는 광목천 빛이 갈색으로 바랬고 또한 올이 벌어지다 못해 찢어진 부분도 있다. 그렇게 찢어져 구멍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래서 보는 이로 하여금 더더욱 독립운동 현장의 분위기를 느끼게 해준다. 1919년 당시 독립운동 현장의 절절함과 급박함이 그대로 전해오는 듯하다.

현존하는 근대기의 여타 태극기들도 모두 지난함을 지니고 있지만 대체로 보존 상태는 양호한 편이다. 개인이나 기관이 소장했던 태극기는 어려운 여건임에도 태극기함에 보관되어 있었다. 그러나 진관사 태극기는 그럴 여건이 아니었다. 90년 동안 벽체에 숨겨져 있다 보니 더 많이 훼손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열악한 상황에서 비롯한 훼손의 흔적은 오히려 90년의 내력을 더 잘 보여주는 결과를 낳았다. 진관사 태극기의 역설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진관사 태극기는 지난함의 내력을 그대로 체현하고 있다. 문화유산으로서 매우 중요한 덕목이 아닐 수 없다.

4. 진관사 태극기의 인식과 수용

4.1. 컬렉션 스토리와 대중 소통

진관사 태극기에 얽힌 스토리는 흥미롭고 박진감 넘치며 대중들의 역사적 상상력과 호기심을 자극하기에 충분하다. 대중들은 이러한 스토리를 기억하고 향유하며 공유한다. 그 스토리의 핵심은 태극기의 발견 상황을 비롯해 태극기의 제작 방식, 함께 발견된 동반 자료에 관한 것이다. 그리고 태극기의 1919년 당시 용도와 철성각에 숨길 때의 정황까지도 스토리로 이어진다. 이러한 스토리는 대중이 진관사 태극기를 인식하고 수용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친다. 스토리의 존재 의미나 효과는 진관사 태극기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문화유산에도 적용된다. 발견된 지 16년밖에 되지 않은 진관사 태극기가 최근 몇 년 사이에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는 것도 이러한 측면과 연관

되어 있다.

그 스토리의 역할과 의미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컬렉션 스토리’의 개념을 적용하고자 한다. 컬렉션 스토리는 컬렉션 과정에 얽힌 다채로운 스토리라고 할 수 있다. 컬렉션은 개인이나 기관, 단체가 문화유산이나 미술품을 수집하는 행위 또는 그 결과물을 말한다. 수집 행위는 매입, 수증(受贈), 발굴, 발견, 전세(傳世)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뤄진다. 그 수집 과정에서 수많은 스토리가 생기고 축적된다. 대중들이 특정 문화유산에 관심을 갖는다고 할 때, 그 관심은 해당 문화유산의 물리적 형체 자체에 국한되지 않는다. 개인이나 기관이 특정 문화유산을 수집한 과정, 수집 동기와 목적, 수집에 들어간 비용(매입 가격), 그것에 대한 세상의 반응 등에도 관심을 갖는다. 이것이 바로 컬렉션 스토리다. 컬렉션 스토리는 크게 ①소장자(컬렉터)의 수집 행위와 과정에 얽힌 스토리 ②수집의 대상이 된 작품(문화유산이나 미술품 등) 자체의 내력과 관련 스토리 ③수집(소장)의 과정과 결과 등에 대한 대중의 반응과 평가로 나눌 수 있다.³⁵

진관사 태극기의 경우, 수집 과정은 우연한 발견이었다. 그러나 그 발견 상황은 예상치 못했던 흥미롭고 극적인 스토리를 만들어냈다. 이러한 과정은 진관사 태극기의 컬렉션 스토리에 해당한다. 진관사 태극기의 컬렉션 스토리는 태극기에 얽힌 스토리 자체로 멈추는 것이 아니다. 태극기를 대중들이 인식하고 수용하며 기억하고 향유하는 데에도 영향을 미친다. 대중들이 진관사 태극기를 인식하고 수용하는 과정은 단순히 태극기라는 물리적 형체만을 받아들이는 것도 아니고, 역사적 맥락만을 받아들이는 것도 아니다. 그에 못지않게 대중들이 관심을 두는 것은 발견 상황과 컬렉션 스토리다.

³⁵ 이광표, 「컬렉션 스토리의 측면에서 본 이건희 컬렉션의 수용과 기증작 전시」, 『문화와융합』 105, 한국문화융합학회, 2023, 973~974쪽; 이광표, 「부여 규암리 금동관음보살입상의 인식과 수용: 미술시장, 상업성, 애국주의의 착종」, 『한국근현대미술사학』 48, 한국근현대미술사학회, 2024, 372~373쪽.

진관사 태극기의 스토리는 위에서 언급한 컬렉션 스토리 ①, ②, ③을 모두 포함한다. 진관사 태극기의 극적인 발견 과정은 컬렉션 스토리 ①에 해당한다. 진관사 태극기 자체에 관한 내용은 컬렉션 스토리 ②에 해당한다. 즉 일장기를 지우고 그 위에 덧칠해 만든 태극기라는 점, 대한민국임시정부와의 관련 속에서 1919년 실제 독립운동에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 급박한 상황에서 독립운동 관련 신문·문건과 함께 진관사 칠성각 벽체에 감추었다는 점 등이 ②에 해당하는 스토리다. 그리고 태극기가 발견된 이후 다양한 방식으로 대중들이 관심을 갖는 양상은 컬렉션 스토리 ③에 해당한다. 이렇게 ①②③을 모두 포함한다는 것은 그 컬렉션 스토리가 풍성하고 극적이라는 사실을 의미한다.

진관사 태극기의 컬렉션 스토리는 대중의 호기심을 자극한다. 태극기는 왜 그렇게 은밀한 곳에 숨겨야 했던 것인지, 감춘 장소는 왜 진관사 칠성각이었는지, 독립운동 관련 신문과 문건을 태극기로 감싸 벽체에 숨긴 사람은 누구였는지, 태극기는 어디에 사용했던 것인지, 태극기와 신문·문건은 어떤 관계였는지 등에 관한 것이다. 이러한 궁금증은 다양한 추론과 상상을 낳는다. 진관사 태극기의 발견 과정과 발견 내용은 영화의 한 장면처럼 박진감 넘친다.

제작 시기나 장소, 용도, 비밀스러운 곳에 숨긴 이유 등에 관해 명확하게 단정할 수는 없지만, 1919년 무렵 제작되어 독립운동에 사용되었고 대한민국임시정부와 적잖은 관련이 있다고 추정할 수 있다. 그동안의 연구 결과, 진관사 태극기에 관해 어느 정도 윤곽이 잡혔다. 그럼에도 그 발견 정황이 매우 극적이기 때문에 여전히 많은 추론이 가능하고 동시에 다양한 상상력을 자극하게 된다.

진관사 태극기는 1919년에 멈춰 있는 것이 아니다. 1919년 이후의 지난한 시간은 진관사 태극기의 내력이 되고 진관사 태극기의 컬렉션 스토리가 되었다. 진관사 태극기 스토리는 역사성과 대중성을 동시에 갖추고 있다. 근

대 문화유산 태극기로서의 역사적 엄숙함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대중과 소통할 수 있는 요소를 갖춘 셈이다.

4.2. 인식과 활용의 방향

근대기의 태극기들이 모두 저마다의 사연을 지니고 있지만 진관사 태극기의 스토리는 극적인 요소가 두드러진다. 진관사 태극기의 역사적 의의와 가치 등을 논한 학술적인 글, 발견 과정과 동반 자료 등에 얽힌 스토리를 대중적으로 소개한 글³⁶ 모두 이러한 점을 강조했다. 따라서 진관사 태극기의 인식과 활용은 이 같은 면모를 부각하고 컬렉션 스토리를 극대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장기를 개조해 태극기를 만들어 독립운동에 사용한 과정, 급박한 상황에서 태극기를 칠성각 불단 뒤에 숨겨야 했던 상황, 2009년 극적인 발견 과정, 태극기와 동반 자료와의 관련성, 발견 이후 태극기의 의미를 탐구하고 추론하는 과정, 국가등록문화유산을 거쳐 보물로 지정되는 과정,³⁷ 우리 사회가 그것을 지켜보고 수용하는 양상까지 100여 년의 전 과정을 대중들이 이해하고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 즉 100여 년 동안의 지난한 과정과 극적인 스토리를 분절적으로 다루는 것이 아니라 연속된 일련의 과정으로 인식해야 한다.

여기서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이 태극기와 동반 자료의 관계다. 100여 년 동안 축적된 극적인 스토리는 태극기가 독립운동 관련 신문·문건과 함께 발견되었기 때문에, 그것도 태극기가 보자기처럼 신문과 문건을 감싸고 있는 상태로 발견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태극기만 발견되었다면 진관사 태극기의 스토리는 훨씬 단순해졌을 것이다.

³⁶ 박석홍, 「3·1운동 90주년 진관사 칠성각 뒷벽에서 발견된 '불교독립운동」, 『문화재사랑』 64, 문화재청, 2010; 송화선, 앞의 글 참조.

³⁷ 진관사 태극기는 발견 9개월 만인 2010년 국가등록문화유산이 되었고 다시 11년 만인 2021년에 보물로 승격되었다. 국내 문화유산이 이렇게 짧은 기간에 국가등록문화유산을 거쳐 보물로 지정된 경우는 매우 이례적이다. 이런 점에서도 진관사 태극기는 사회적으로 관심과 화제의 대상이 되었다. 「군자금 모급, 승려 의용군 조직...불교계 항일운동의 핵」, 『중앙일보』, 2010.3.1; 「일장기 위에 그린 태극기, 90년 만에 공개」, 『경향신문』, 2010.2.25 참조.

따라서 태극기가 오랜 세월 정성스레 감싸고 있었던 독립운동 관련 신문과 문건도 중요하게 인식해야 한다. 이 자료들은 태극기와 별개의 존재가 아니라 한 몸이나 마찬가지로이다.

그런데 진관사 태극기는 보물로 승격되었고 동반 자료는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남아 있다. 태극기와 동반 자료는 2010년 모두 한 건의 국가등록문화유산(〈진관사 소장 태극기 및 독립신문류〉)이 되었지만 2021년 태극기만 보물로 승격되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대중들이 태극기와 동반 자료를 별개의 존재로 인식할 수 있다. 2025년 광복 80주년을 기념해 국가유산청이 개최한 특별전 《빛을 담은 항일 유산》에서도 진관사 태극기만 전시되었고 『독립신문』(상해판), 『자유신중보』와 같은 동반 자료는 출품되지 않았다.³⁸

두 문화유산이 상호연관성을 잃어버리고 별개로 존재하게 되면 컬렉션 스토리의 의미와 매력이 반감된다. 스토리의 측면에서만뿐만 아니라 태극기의 구체적 실체를 확인하고 태극기와 독립운동의 관계를 규명하는 데에도 방해가 된다. 일제강점기의 태극기 문화유산은 그 특성상 이러한 맥락 즉 태극기와 독립운동의 구체적인 관계가 중요하다.³⁹ 진관사 태극기는 그 제작 주체, 제작 목적과 용도, 은닉 배경 등에 대해 지속적인 조사·연구가 필요한 상황에 동반 자료와의 관계는 더욱 중요해진다.

진관사 태극기를 활용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성찰이 필요하다. 진관사 태극기는 지난했던 항일독립운동의 흔적이다. 그 시련과 상처의 흔적은 태극기 실물에 잘 남아 있다. 태극기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흔적과 특성을 살릴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현재 시중에 유통되는 여러 종의 진관사 태극기 배지를 보면 시련과 상처의 흔적이 전혀 드러나지 않는다. 너무 밋밋하고 깔끔해서 진관사 태극기

의 분위기를 느끼기 어렵다. 자그마한 배지에 그 흔적을 드러낸다는 것이 어려운 일이겠지만 그럼에도 그 흔적을 최대한 살릴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특성을 정교하게 드러내지 못하면 그것은 진관사 태극기 배지가 아니라 일반적인 태극기 배지로 받아들여질 것이다.

5. 맺음말

2009년 우연히 발견된 진관사 태극기는 현존하는 근대기의 태극기 가운데 가장 극적인 스토리를 지니게 되었다. 그 스토리는 발견 상황, 제작 방식, 동반 자료의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태극기가 진관사 칠성각 내부의 벽체와 기둥 사이 은밀한 곳에서 발견되었다는 점, 독립운동 관련 신문과 문건을 감싼 채 보자기 형태로 발견되었다는 점, 그 태극기가 일장기를 지우고 먹을 덧칠해 만든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점, 불에 탄 듯한 흔적이 태극기에 남아 있다는 점, 태극기의 4괘가 대한민국임시정부 태극기의 4괘와 일치한다는 점 등이다. 이러한 정황은 1919년 당시 상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태극기, 불교계(진관사), 대한민국임시정부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었고, 1919년 당시 태극기와 독립운동 관련 자료를 은밀한 곳에 숨길 수 밖에 없는 급박한 상황이 발생했음을 추론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은 진관사 태극기의 역사적·문화유산적 의미와 가치로 이어진다. 이에 관한 논의 결과, 다음과 같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제작 방식(일장기를 지우고 그 위에 먹으로 덧칠해 태극기로 만들었다는 점)에서는 강렬한 항일 의지가 드러난다. 이는 일제강점기 태극기로서의 존재 의미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발견 상황(태극기가 3·1 독립운동 관련 신문과 문건을 감싼 채로 발견되었다는 점)은 1919년 당시 이 태극기가 독립운동에 사용되었고 불교계, 대한민국임시정부와 깊은 관련이 있음을 보여준다. 동시에 급박한 상황에서 태극기와 신문·문건을 감출 수

38 국가유산청, 『빛을 담은 항일 유산』, 2025.

39 태극기와 독립운동의 구체적 관계의 중요성에 대해선 윤선자, 앞의 논문 참조.

밖에 없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함께 발견된 동반 자료를 통해 1919년 당시 태극기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았다. 대한민국임시정부 기관지인 『독립신문』(상해판)에 실린 시「태극기」를 통해 태극기가 항일독립의 상징물이었음을 확인했다. 또 김두봉의 글「태극국기신설」을 통해선 태극기가 주역의 원리를 넘어 인류 보편의 자유와 평등을 추구한다는 점을 이해할 수 있었다.

진관사 태극기는 현존하는 일제강점기 태극기 가운데 그 지난함과 극적 스토리 측면에서 가장 두드러진다. 그런데 그 지난함의 흔적이 태극기에 상처처럼 고스란히 남아 있다. 불에 탄 듯한 흔적, 구멍과 찢어진 부분, 빛바래 등등. 이는 칠성각 벽체 은밀한 곳에서 90년 동안 숨겨져 있어야 했던 물리적인 상황도 영향을 미친 것이다. 그 열악한 여건과 상처의 흔적은 세월이 흐른 뒤 진관사 태극기 특유의 가치와 미학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그리고 그것은 진관사 태극기의 스토리가 되어 대중에게 감동을 주고 사회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이것이 진관사 태극기의 문화유산으로서의 의미와 가치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논의 성과를 토대로 진관사 태극기의 인식과 활용의 방향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진관사 태극기의 스토리가 대중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그 발견 상황, 제작 방법, 동반 자료의 측면에서 독특하고 의미 있는 내용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극적인 컬렉션 스토리를 극대화하고 동시에 스토리의 요소들을 분절시키지 말아야 한다. 그 가운데 하나가 태극기와 동반 자료의 관계다. 진관사 태극기의 스토리는 태극기와 동반 자료를 함께 감추었던 상황에서 비롯했다. 따라서 진관사 태극기와 동반 자료는 역사적 맥락이나 문화유산적 가치의 측면에서 일체화된 존재로 받아들여져야 한다. 서로 분리해 다룰 경우 역사적 맥락을 상실해 그 의미와 가치가 반감될 수밖에 없다.

진관사 태극기와 동반 유물은 2010년 <진관사 소장 태극기 및 독립신문류>라는 이름으로 국가등록문화유산으

로 등록되었다. 그러나 진관사 태극기의 존재감이 점점 부각되면서 2021년 진관사 태극기는 보물로 승격되었고 이에 따라 동반 자료는 국가등록문화유산(〈진관사 소장 독립신문류〉)으로 남게 되었다. 자칫 대중들이 진관사 태극기와 동반 자료를 분리해 별개의 문화유산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태극기와 동반 자료를 동일한 역사적 맥락 속에서 인식하고 활용하는 것에 대해 진지한 성찰과 적절한 방향 설정이 필요한 대목이다. 이러한 성찰과 고민은 진관사 태극기의 인식과 수용·활용에서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방법의 하나이기도 하다.

참고문헌

1. 단행본 및 논문

- 국가유산청, 『빛은 담은 향일 유산』, 2025.
- 국립중앙박물관, 『대한의 상징, 태극기』, 2008.
- 김광식, 『백초월의 항일운동과 진관사』, 『한국독립운동사연구』 36, 독립기념관 한국 독립운동사연구소, 2010.
- _____, 『백초월 독립운동의 이념』, 『진관사 태극기와 백초월』, 대한불교조계종 진관사·백초월스님선양회, 2025.
- 김도형, 『태극기의 유래와 독립운동』, 『독립기념관』 203, 독립기념관, 2005.
- 김주현, 『신채호의 신대한발행과 독립운동』, 『한국독립운동사연구』 36, 독립기념관 한국 독립운동사연구소, 2010.
- 목수현, 『100년의 세월을 품고 돌아온 데니 태극기』, 『문화재사랑』 196, 문화재청, 2021.
- _____, 『태극기 오얏꽃 무궁화: 한국의 국가상징 이미지』, 현실문화연구, 2021.
- 문화재위원회, 『2021년도 문화재위원회 동산문화재분과위원회 제5차 회의자료』, 문화재청, 2021.
- 박석홍, 『3·1운동 90주년 진관사 칠성각 뒷벽에서 발견된 ‘불교독립운동’』, 『문화재 사랑』 64, 문화재청, 2010.
- 송명호, 『문화재가 된 태극기』, 『문화재』 347, 한국문화재단, 2013.
- _____, 『태극기 문화재 활용방안: 진관사 소장 태극기를 중심으로』, 『대각사상』 18, 대한불교조계종 대각회 대각출판부, 2021.
- _____, 『태극기의 유래와 독립운동에 미친 영향』, 『독립기념관』 402, 독립기념관, 2021.
- _____, 『진관사 태극기의 재조명』, 『진관사 태극기와 백초월』, 대한불교조계종 진관사·백초월스님선양회, 2025.
- 송화선, 『90년 만에 드러난 불교계 항일운동』, 『신동아』 714, 동아일보사, 2019.
- 윤선자, 『독립운동과 태극기』, 『역사학연구』 35, 호남사학회, 2009.
- _____, 『근대문화유산의 현황과 보존방안 연구』, 『한국근현대사연구』 75, 한국근현대사학회, 2011.
- 이기훈, 『3·1운동과 깃발』, 『동방학지』 185, 연세대출판부, 2018.
- 이재수, 『문화콘텐츠로 본 진관사 태극기 기념사업』, 『정토학연구』 17, 여래장, 2012.
- 이광표, 『컬렉션 스토리의 측면에서 본 이건희 컬렉션의 수용과 기증작 전시』, 『문화와융합』 105, 한국문화융합학회, 2023.
- 정진석, 『등록문화재로 지정된 언론 관련 유품들: 80년 만에 돌아온 유품들엔 항일 언론의 투혼 담겨』, 『신문과방송』 493, 한국언론진흥재단, 2011.
- 제점숙, 『근대문화유산의 활용과 역사인식 문제』, 『비교일본학』 35, 한양대 일본학 국제비교연구소, 2015.
- 한상도, 『3·1운동 직후 『自由農鍾報』 간행과 독립운동계 동향』, 『한국 독립운동과 진관사: 서울역사박물관 시민강좌』, 서울역사박물관, 2010.
- 한철호, 『진관사 태극기의 형태와 그 역사적 의미』, 『한국독립운동사연구』 36, 독립기념관 한국 독립운동사연구소, 2010.

Abstract

The Value of the Jinguansa Taegeukgi as a Cultural Heritage and the Direction of its Public Sharing

Lee, Kwang-Pyo | Seowon University

This paper explores the historical and cultural significance of the Jinguansa Taegeukgi, discovered in 2009 during the restoration of Chilseongak Hall at Jinguansa Temple in Seoul. Hidden within the building's walls, the flag was wrapped in 1919 newspapers and independence movement documents. Uniquely, it was created by erasing the Japanese flag and painting the Taegeuk and four trigrams over it, with burn marks still visible. The trigrams match those of the Taegeukgi used by the Provisional Government of Korea, suggesting its link to independence activities. The Taegeukgi's production method, concealment, and discovery collectively reveal its profound symbolic value as a testament to Korea's resistance during Japanese occupation. Its 90-year journey—from creation and use to hiding and rediscovery—embodies historical endurance and emotional resonance, establishing the Jinguansa Taegeukgi as a rare cultural heritage artifact representing the spirit and struggle of the Korean independence movement.

Keywords Jinguansa Taegeukgi, historical context, value as a cultural heritage, collection story, recognition and utilization

이 논문은 2025년 9월 20일에 투고 완료되어

2025년 9월 30일부터 10월 15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25년 10월 20일에 심사위원 및 편집위원 회의에서 게재가 결정된 논문임